

# 순천향

SOONCHUNHYANG UNIV. MEDICAL CENTER MAGAZINE

통합의료원보 VOL. 91

2025  
09  
10

순천향 SOONCHUNHYANG UNIV. MEDICAL CENTER MAGAZINE

통합의료원보 2025. 09+10

한가위  
따뜻한 마음이  
순천향 마음입니다



SCH SOONCHUNHYANG UNIVERSITY MEDICAL CENTER

순천향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 **중앙의료원**이 있습니다!



Editor\_백승주

진료는 사랑이며, 곧 사람에 대한 존중입니다.

사람을 사랑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치유하는 길, 이것이 바로 순천향이 걸어온 진료의 길입니다. 순천향이 추구하는 진료는 병을 고치는 것을 넘어, 환자의 삶 전체를 존중하고 어루만지는 '인간사랑'의 정신이 진료의 중심에 있습니다. 순천향의 진료는 의술을 넘어선 사명이며, 이웃과 세상에 대한 따뜻한 책임입니다.

서교일 이사장이 강조하는 '휴메인 앙트레프레너' 정신은 바로 이러한 길을 위한 철학입니다. 사람을 향하고 사랑을 이루는 순천향의 정신은 실천과 혁신 없이 완성될 수 없습니다. 병원의 모든 구성원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을 위해 고민하고 실천할 때, 우리는 진정한 사람 중심 병원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 사명의 실천을 이끄는 심장부가 바로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입니다.

중앙의료원은 이 정신을 가장 앞에서 실천하며, 모든 순천향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합니다. 인간사랑의 가치를 의료 현장에서 구현하고, 혁신과 연대로 세상에 없는 병원을 만들어가는 것—그 중심에는 언제나 중앙의료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중심에 함께 서는 일입니다.

\*휴메인 앙트레프레너. 따뜻한 혁신을 통해 새로운 가치 창조(서교일 이사장이 순천향대 건학 40주년에 처음 쓰기 시작)

# 순천향

SOONCHUNHYANG UNIV.  
MEDICAL CENTER MAGAZINE

2025. 09+10 VOL. 91

발행일 2025년 9월 16일

통권 91호

발행인 서유성(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장)

발행처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편집위원 이미중, 한세형, 이상원, 안지영

주소 서울시 용산구 대사관로31길 31

연락처 02-710-3166 www.schmc.ac.kr

편집디자인 피앤플러스 02-2269-5689

인쇄 (주)대한프린테크



표지설명  
풍성한 가을과 추석을 맞아 순천향 환우와 가족, 그리고 순천향인 모두에게 보람달처럼 행복이 가득하길 염원하는 의미를 담았다.

## 06

### LOVE

광복 80주년, 고국 찾은 애국자들의 핏줄



## 08

### FOCUS

순천향의대 총동창회 제16대 회장 김대익 취임  
- "데이터 기반의 소통하는 투명한 동창회 만들 것"



## 10

### HISTORY

한국 현대의학의 성장에 바친  
서석조 박사의 삶 『서석조 평전』 연재 ⑩  
- 이화여대 나온 '포항 갑부집 딸'  
'김정옥'과 결혼하다

## 12

### DOCTOR

열정의 의사, "나의 재능은 '노력' 하는 것"  
- 천안병원 정운호 소화기내과 교수



## 16

### VISIT

가족 같은 '믿음'과 '신뢰'로 하나가 되다  
-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산부인과



## 20

### WITH

"기업의 성공, 사회와 나누는 것은 당연한 일"  
- 남후식 (주)남영물류산업 회장



## 22

### ISSUE

자율신경 기능 장애,  
파킨슨병 초기 인지 저하 예측에 도움

## 24

### ISSUE

- 순천향대 부천병원 '하지 재건 클리닉',  
환자 맞춤형 고난도 재건 치료 본격화  
- 신장암 2기도 전절제 아닌  
'부분절제술'로 치료한다

## 26

### ISSUE

천안병원, 중환자실 1인 병상 전환  
'의료계 혁신 선도'

## 28

### ISSUE

순천향대 · 순천향대 구미병원 · 구미전자정보  
기술원, AI의료융합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3자 업무협약 체결



## 30

### KNOWLEDGE

흡연, 비알코올성 지방간 발생 위험 높인다

## 32

### KNOWLEDGE

부천병원 심장내과 문인기 교수팀,  
SI 기반 심장비대 원인 감별 기술 개발

## 34

### KNOWLEDGE

'무조건 항암치료'는 옛말 위암 치료에도  
'맞춤형' 시대가 온다

## 36

### KNOWLEDGE

성조숙증과 환경호르몬 노출

## 38

### BOOK

실명 인구 100만 시대  
『당신의 눈은 안녕하십니까?』

## 40

### CULTURE

케데헌 신드롬, 세계를 흔드는 K-팝 애니메이션

## 44

### EQUIPMENT

보스톤사이언티픽 리zum 시스템  
(Rezūm System)

## 44

### NEWS

# 광복 80주년, 고국 찾은 애국자들의 핏줄

## 부천병원, 카자흐스탄 고려인 독립운동가 후손 초청 검진

올해는 대한민국 독립 80주년이다. 독립을 쟁취하기까지 수많은 해외 독립운동가의 피와 땀이 밀거름됐다. 하지만 정작 이들은 독립 후 구소련 스탈린 정권의 강제 이주로 중앙아시아의 여러 나라에 정착해 고려인으로 살아야 했다. 어려운 삶 속에서도 고려인이라는 자긍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꿈에 그리던 고국을 찾았다.

글 전진용 사진 한남기

이번 방문은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의 기획과 부천시의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고려인 독립운동가 후손 4인을 초청해 프리미엄 건강검진을 제공한 것이다. 초청된 이들은 독립운동가 최봉설 지사의 후손 ‘엠 예카테리나(Yem Yekaterina)’ 부부와 채성룡 지사의 후손 ‘김 올렉(Kim Oleg)’ 부부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김상균 교수(국제의료협력실장)는 “2009년부터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의 국가 간 국제 의료 교류사업을 통해 외국인 환자 유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며 “부천시와 함께 2023년부터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 소속 고려인 환자를 대상으로 안전하고 신속한 나눔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광복 80주년을 맞아 뜻깊은 기획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김상균 국제의료협력실장과 국제의료협력팀, 건강검진을 받은 독립운동가 후손 김 올렉 씨 부부와 엠 예카테리나 씨 부부



순천향대 부천병원 김상균 국제의료협력실장

### 원스톱 프리미엄 건강검진 제공...

#### 첨단 검진시스템에 감탄

기획 의도에 맞춰 부천병원은 방문한 후손들에게 최첨단 프리미엄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했다. 연령대와 성별을 고려해 기본 신체 계측과 내시경 검사를 비롯해 복부, 전립선, 유방, 경동맥, 갑상선, 심장 초음파 등 주요 검사를 실시했다. 많은 검진 과정에도 불구하고 만나질 만에 모든 검사를 마무리해 빠르고 우수한 검진시스템에 감탄했다는 후문이다. 엠 예카테리나 씨는 “고국의 발전된 의료시스템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으며 이런 소중한 검진 기회를 통해 좀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됐다”며 감사함을 전했다. 카자흐스탄은 한국에 비해 의료 수준 발전은 더디지만, 최근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202개국 중 11번째로 많은 총 14,847명의 카자흐스탄 환자가 한국을 방문했다. 김상균 교수는 “고려인 사회에 한국의 우수한 의료서비스가 더 널리 알려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고려인에게 친화적인 병원 이미지는 부천병원의 글로벌 경영에도 큰 힘을 실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선대의 아픈 발자취와 한국 발전상 둘러봐

방문단은 건강검진 외에도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경험했다. 한국 방문 첫날 환영 오찬을 갖고 영종도와 월미도 투어를 진행했다. 방문 2일 차 건강검진 후, 3~4일 차에는 임진각, DMZ 등 경기도 안보 관광과 서울 서대문 형무소 등을 방문하고 부천시 광복절 행사에 참여했다. 특히 채성룡 지사의 외증손자인 김 올렉 씨는 채성룡 지사가 1928년 수감되었던 서대문 형무소를 직접 방문해 일제 치하에서 고초를 겪었던 선조들의 숭고한 희생에 대한 안타까움과 감사함을 함께 전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 글로벌 ESG 실천 선도병원 재확인...“영역 더욱 확대해 나갈 것”

부천병원은 외국인 환자 친화적인 의료진과 국제의료협력팀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최상의 국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글로벌 ESG 실천 선도병원으로서 경기도, 부천시 등 지자체와 협력 기관의 지원을 받아 매년 초청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상균 교수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코디네이터가 상주하며 다양한 외국인 환자에게 맞춤형 국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향후 다양한 국가와 인종을 대상으로 글로벌 영역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방문을 마치며 김 올렉 씨는 “순천향대 부천병원과 한국인들의 환대와 따뜻함은 우리 마음 깊이 간직할 소중한 자산이 되었다. 물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한국과 우리의 연결은 영원할 것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와 함께 엠 예카테리나 씨는 “한국 방문은 그야말로 ‘운명의 선물’이었다. 한국 광복 80주년을 맞아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신 주최 측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귀한 행사에 참여했다는 것은 큰 영광이었다”라며 환하게 웃었다.



서대문 형무소를 방문한 김 올렉 씨 부부와 엠 예카테리나 씨 부부



# “데이터 기반의 소통하는 투명한 동창회 만들 것”

순천향의대 총동창회 제16대 회장 김대익 취임  
지속 가능한 동창회 시스템 혁신에 박차

인턴과 레지던트까지 순천향대병원에서 의사의 길을 걸어 온 8회 김대익 동문이 지난 3월,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총동창회 제16대 회장에 취임했다. 오랜 시간 모교와 함께한 그는 이제, 동문과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동창회를 만들기 위해 나섰다. 회장으로서 6개월의 짧은 시간임에도 투명한 기부 시스템 구축,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장학재단 운영의 정체성 강화 등 구체적인 실행을 통해 동창회의 내실을 다지고 있다. 김 회장은 “동문 모두가 자부심을 느끼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동창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한다.

## 데이터 기반의 투명한 운영, 새로운 플랫폼으로 전환

“1985년 입학해 1991년 졸업한 뒤 본교 대학병원에서 인턴과 레지던트를 했던 것이 엇그제 같은데, 이렇게 저희 기수가 동창회 회장단을 맡게 되니 감회가 새롭고 무거운 책임감을 함께 느낍니다.” 올해로 개교 48주년을 맞은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은 서울, 부천, 천안, 구미에 부속병원을 둔 전통 있는 명문 의과대학이다. 매년 100명 이상의 의사를 배출하며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동문들이 환자 진료, 의학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총동창회는 현재 약 5,000여 명의 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 회장은 “대한민국 최고의 의과대학 동창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하며 “제16대 회장단은 선배님들의 자랑스러운 전통과 업적을 계승하면서, 더 큰 도약과 발전을 위한 지속 가능한 시스템 구축에 주안점을 두고자 합



김대익 한국프라임제약(주) 회장

니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특히 총동창회의 사무자료와 기부금 후원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에 미흡했던 점을 언급하며, 임기 초부터 관련 자료들을 모두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신규 홈페이지에서 운용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전했다. 일반사무, 회원관리, 후원자관리, 회계업무를 통합하고 최적화한 ‘IMOP(Integrated Management Optimization



Program)’과 회장단의 독단적 결정을 방지하고 데이터에 기반해 의사결정을 내리는 ‘DDMP(Data-Based Decision Making Process)’ 체계를 통해 발전적 토대를 만들었다. 이제는 동문 누구나 연회비, 발전기금, 장학기금 등 자신이 납부한 후원 내역을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되었으며, 500만 원 이상 후원자부터는 ‘명예의 전당’에 실시간 자동 등재된다. 나아가 내년 말 준공 예정인 의대 신·중축 건물 내부에 후원자 명패(name plate)도 제작하여 영구적으로 기록할 계획이다.

“기존의 계좌이체 외에도 홈페이지에서 버튼 한 번으로 신용카드, 자동이체(CMS) 후원이 가능하도록 했고, 분납 약정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게 시스템을 정비했습니다. 후원자에게 소득공제용 영수증도 발급해드리고, 예우 프로그램도 마련 중입니다.”고 강조했다.

## “장학재단, 정통성과 정체성을 담아 새 이름으로 출발”

순천향의대 총동창회 산하에는 전공의들이 퇴직금 일부를 적립해 조성한 장학재단이 있다. 2001년 설립된 이 재단은 최근까지 ‘순천향장학회’라는 이름으로 운영되었지만, 지난 6월 새로운 이름을 얻었다. “이제는 ‘순천향의과대학 동창회장학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정통성과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자 했습니다.”

현재 해당 재단에는 20억 원 이상의 장학기금이 남아 있으며, 수십억 원의 장학금이 의대생과 동문 교수, 의대 발전

을 위해 사용되어 왔다. 여기에 더해 12억 원 이상의 의대 발전기금 및 동창회 기금도 별도로 조성돼 있다. “이 기금은 앞으로 의대생 지원과 동문 교수의 연구 활동 지원에도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라고 설명했다.

## “지속 가능한 발전 위해 전 세대 동문과 함께 갈 것”

김 회장은 8회 졸업생 동기뿐 아니라 많은 동문 교수, 개원의, 전공의 선후배들이 적극적으로 동창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통과 참여를 강화할 계획이다.

“여러 기수로 구성된 임원진의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 현명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빠르게 의사결정 하면서 동창회를 연속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것입니다.”라며, 기초 및 임상 동문 교수, 개원의, 전공의, 재학생과의 유대 강화에도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우리가 졸업한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이 함께 발전하는 것이 우리 동창회의 근본적인 목표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회원 간의 작은 소통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말까지 예정된 의대 신·중축 건립, 2028년까지의 순천향발전위원회 기금 조성 과정에도 총동창회가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하며 “지난 수년간 코로나19와 의료대란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동창회를 이끌어준 역대 회장과 임원, 그리고 모든 동문에게 깊은 감사를 잊지 않았다.”



**한국 현대의학의 성장에 바친 서석조 박사의 삶을 연재합니다.**

순천향대학교 학교법인 동은학원은 2021년 서석조 박사 탄생 100주기를 기념하기 위해 '향설서석조탄생100주년기념사업회'를 발족하여 '서석조 평전'을 출간했다. 이 책은 서석조 박사의 활동이 지닌 의미를 역사학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서교일 이사장을 비롯한 수많은 연구진이 참여하여 국내외의 수집된 실증적 자료 검토와 인터뷰를 통한 자료를 정리 저술했다. 본지는 한국 현대 의학의 성장에 일생을 오롯이 바친 서석조 박사 삶의 완결편인 '서석조 평전'을 '서석조 박사 탄생 100주년 기념 SCH 플랫폼'의 재발간 일환으로 연재한다.

## 이화여대 나온 '포항 갑부집 딸' '김정옥'과 결혼하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에서의 수련 경험을 통해 서석조는 실망과 희망이 교차하는 양가적 감정을 느꼈을 것이다. 그를 낙담시킨 가장 큰 요소로는 교내의 파벌 형성과 그들 사이의 갈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국대안 파동에서 비롯된 지속적인 세력 다툼과 그로 인한 혼란은 그의 배움에 대한 추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었다. 국대안 사건에서 드러나는 경성제대 출신과 경의전 출신 사이의 파벌로 인한 갈등은 교토부립의과대학이라는 제3의 졸업장을 가진 서석조에게 실망감만을 안겨주었다. 두 학교 출신 의학도들이 갈등을 겪고 그 사이의 경계를 지으면서 이를 각자의 커뮤니티를 강하게 만들 기회로 삼았던 반면, 서석조는 그 사이에서 양편 중 어디에도 온전히 소속될 수 없었다. 강한 의지로 해방 이후에도 귀국하지 않고 일본에서 학업을 마친 것이 결과적으로는 그를 더욱 험난한 길로 이끌었다. 그가 경북중학교 및 교토부립의과대학 시절 온화하면서도 강직한 성품과 성실하게 쌓은 실력을 통해 동료들과 견고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 서울대학교에서의 경험은 그에게 성품이나 실력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벽이 있음을 느끼게 하였다. 선후배 간 네트워크가 대학의 운영과 교원의 임용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상황에서 교수의 길을 추구하였던 서석조는 미래가 한없이 불투명하게만 느껴졌을 것이다.

### 부인과 어린 딸 두고 미국 유학 결심한 서석조

미국 의학을 선망하는 1940년대 말 의학계의 분위기는 서석조를 비롯한 몇몇 적극적인 의사들에게 미국에 대한 유학을 꿈꾸도록 자극하였다. 특히 서석조의 경우에는 서울대학교의 혼란으로 인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미래에 대한 고민을 더욱 깊게 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파벌 갈등으로 점철된 것처럼 보이는

한국인들과, 과감하게 보건정책을 주도하는 미국인들 중 어느 쪽에게 배우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인가? 무엇보다도 상상도 하지 못하였던 특효약들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미국의 의학을 하루빨리 배워 오는 것이, 질병에 신음하는 한국인들을 살리는 동시에 성공한 의학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닐까? 젊은 의학도였던 서석조는 바쁘게 환자들을 보는 와중에도 이러한 고민을 끊임없이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유학을 고민하던 서울대학교 내과학 교실 의국원 시절, 서석조의 어깨는 전보다 훨씬 더 무거웠다. 그가 26세가 되던 해인 1947년, 서석조는 김정옥과 결혼하여 가정을 꾸렸다. 김정옥은 이화여자대학교를 다닌 세련된 지식인으로 “포항 갑부집 딸”로 불릴 정도로 유복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였다. 서석조와 그의 어머니는 모두 김정옥을 마음에 들어 하였지만, 문제는 의사가 된 큰아들인 서석조를 “특등 신랑감”이라고 생각하였던 아버지였다. 서경선은 바닷가인 포항 출신이라는 이유로 김정옥을 별로 반기지 않았고, 심지어 신체검사표를 들고 오라고 할 정도로 까다롭게 대하였다. 그러나 서석조는 김정옥과의 결혼을 위해 계속해서 부친을 설득하였고, 한번 결정하면 끝까지 목표를 이루고야 마는 서석조의 성정대로 결국 아버지의 허락을 얻어냈다. 이렇게 결혼한 둘은 1년 후인 1948년에 첫 딸 은주를 얻었다.

서석조는 신혼에 아이까지 있었지만, 미국 유학을 자신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믿었다. 당시 미국 정부에서는 한국인 학생이 미국으로 유학을 갈 때 가족을 함께 데리고 떠나려 하면 이민 목적이라고 판단하여 비자를 내주지 않았다. 달리 말하면, 미국 유학은 그에게 가족과의 오랜 이별을 감수해야 하는 선택지였다. 부인과 어린 딸을 둔 채 미국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쉽사리 떨어지지 않았지만, 그는 선진적인 의학을 습득하여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한국의 비참한 상황을 극복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미국으로의 유학을 결심하였다. 서석조를 믿었던 김정옥 역시 그의 결심을 지지하였다. 형편이 비교적 넉넉하였던 김정옥의 아버지는 결혼한 지 단 2년 만에 딸과 부인을 두고 미국 유학을 가겠다는 무심한 사위에게 유학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았다. 서석조의 미국 유학은 곧 현실이 되었다.

해방 직후는 한국사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 중 하나였지만, 한편으로는 항생제 등 최신 의약품을 위시한 미국의 의학과 보건정책이 한국 의학의 발전에 강한 자극을 준 시기이기도 하였다. 서석조 개인 차원에서는 무엇보다도 내과라는 전공과목을 선택하고 한국 의학계의 한계를 절감하며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이 시기가 중요성을 가진다. 그는 국내 의학교 졸업자들의 파벌 구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위를 쟁취하기보다는, 거기에 들어갈 시간과 에너지를 선진 의학의 학습에 기울이고자 하였다. 그는 당시 한국과 일본의 의학에 머무르기보다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선진 의학을 직접 접하고 배우겠다는 의지가 강하였다. 이는 그가 미국 유학이라는 먼 길을 가게 되는 중요한 동인이 되었다. ■SCH

# 열정 의사 정윤희, “나의 재능은 ‘노력’ 하는 것”

최신 ‘치료 내시경 기술’ 분야 선도...모두가 인정하는 하드 워커 연구자

격투기 선수 출신 방송인 김동현 씨가 성공비결로 꼽은 단어는 ‘노력’이다. 순천향대 천안병원에도 이와 같은 단어로 떠올릴 수 있는 의사가 있다. 바로 국내 치료 내시경 분야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정윤희 교수다. 정 교수는 스스로는 겸손하게 손사래를 치지만, 주변은 그의 전문성을 인정한다. 연구를 일상처럼 이어가며, 오늘도 묵묵히 하드 워커 의사로서의 길을 걷고 있다.

글. 전진용 사진. 이병희

유독 영화를 좋아했던 정윤희 교수의 어린 시절, 홍콩영화 속 무술과 의술에 능통한 주인공을 보며 무술은 힘들더라도 의술은 연마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곤 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한의사가 꿈이었다. 성장해 나가면서도 어린 시절 꿈꿨던 의학자의 꿈은 항상 마음 한구석에 자리하고 있었다. 어느 날 그 꿈은 좀 더 구체화됐다. “어머니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신 적이 있습니다. 밤새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며 저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침이 되어서야 병실에 회진을 온 하얀 가운의 레지던트 의사들을 보며 ‘참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환자와 보호자의 얘기를 좀 더 많이 들어주었으면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 교수는 의사가 되고자 하는 목표가 세워졌다. 그냥 의사가 아닌, 환자의 말을 더 귀담아듣고 더 많이 소통하는 다정한 의사가 그가 꿈꾸는 의사였다.

## 미국 하버드 의대 유학, 그의 앞길을 보여주다

목표를 이뤄 의대에 진학한 정 교수는 좀 더 많은 경험을 하고 싶었다. 그래서 순천향대 서울병원 펠로우를 마치고 유학을 결심했다. 당시 순천향대학교 의대 1호 자비 유학이었다. 미국 하버드 의대로 유학을 결심한 그는 무겁지 않은 마음으로 유학길에 올랐다. “처음에는 영어도 공부할 겸 또 다른 세상을 경험하고 싶다는 생각이 컸던 것 같습니다. 의학적인 큰 꿈을 꾸기에는 아직 풋내기였으니까요.”

처음에는 기대와는 달리 조금은 소외된 듯한 느낌을 받았다. 누구도 먼저 무엇을 가르쳐주거나 알려주지 않았다. “마치 ‘꿔다 놓은 보릿자루’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아무도 날 위해 무언가를 해주지 않았거든요. 드라마 ‘미생’의 주인공 ‘장그래’가 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누구도 손을 뻗지 않기에 능동적으로 유학 생활에 임하려고 노력했다. 처음에는 몰랐던 여러 의사와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했고 또 함께 소통하며 연구도 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옵저베이션(observation)만 했던 것 같아요. 직접 제가 나설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이런 걸 지켜본 한 교수는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라며 조언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어느덧 유학 생활에 적응하고 많은 이들과 가까워지면서 그저 지켜보는 것이 아닌 직접적인 연구에 참여할 수 있었다.

## 오기와 열정, 연구의 맛을 느끼다

“일본인 의사, 현지 미국인 의사 등과 함께 동물을 대상으로 여러 연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책에서 배운 것이 아

정  
윤희

순천향대 천안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닌, 새로운 무언가를 저 스스로 터득하고 배워나가는 성취감이 들었습니다. 연구에 대한 재미와 흥미, 그리고 열정이 생기기 시작했던 시점 같습니다.” 흥미와 열정으로 연구한 결과로 논문을 내놓을 수 있었지만,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어야 했다. “현지 교수님이 ‘제1 저자 등재를 양보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을 하더라고요. 다음에 기회를 주겠다면서요. 저는 마치 공든 탑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그럴 수 없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결국, 공동 제1 저자로 등재될 수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오히려 오기와 열정이 더해져 연구에 대한 열망은 더욱 커졌다. “아마 그 시기가 저의 의사로서 연구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유학을 마치고 순천향대 천안병원으로 부임하면서 그의 연구에 대한 열정은 더욱 불타 올랐다. 바쁜 일과 속에서도 연구만큼은 놓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진료와 내시경 시술에 전념하고, 저녁에는 연구에 집중하곤 했습니다. 어느새 이런 삶이 자연스럽게 제 일상이 되었지요. 예전에 어떤 수석 합격생이 ‘놀기 위해 공부했다’라고 말한 것처럼, 저 역시 가능한 많은 내시경 시술을 경험하고자 했으며, 연구도 꾸준히 이어가기 위해 계획을 세워 실천했습니다. 또 하루하루 바쁜 일과를 조금 더 빨리 마무리해 여유 시간을 확보하려는

마음으로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완수해야만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져 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열정과 노력은 의사를 춤추게 한다

정 교수의 일상이자 습관이 된 연구 활동은 그를 본인 분야 최고 수준의 자리에 오르게 했다. 월드클래스라는 말을 부끄러워하던 축구선수 손흥민처럼 정 교수 역시 ‘최고 권위자’, ‘명’이라는 수식어에 손사래를 친다. “제 영역에서 나름의 자신감이 있고 그만큼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런 평가를 받기에는 제 스스로 부족함을 느낍니다. 앞으로 더 어렵고 고난도의 시술을 경험하며, 연구에도 매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저 스스로 ‘내가 최고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 교수는 스스로는 여전히 배고플지 모르지만, 이제 공인된 최고 전문가의 한 자리를 차지했다. 특히 치료 내시경 분야에서는 의학계에서는 손꼽히는 최고 전문가다. 지난해 10월에는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콘퍼런스’에서 치료 내시경 시술을 라이브로 진행했다. 전 세계 27개국 800명의 소화기 내시경 전문의들이 참여한 콘퍼런스에서 구불 결장에 위치한 35mm 크기의 함몰된 ‘측방발육형종양’ 환자의 치료 내시경 시술

전 과정을 공유했다. 고난도 시술을 직접 지켜본 참석자들은 정 교수에게 수많은 찬사를 보냈다.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소화기내과는 최신 장비와 수준 높은 의료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고난도 치료 내시경 시술에서도 풍부한 경험과 성공적인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의 다양한 의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우리 병원 소화기내과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어 매우 뜻깊었습니다.” 대장암과 선종성 병변을 제거하는 데 활용되는 최신 내시경 시술을 선보이는 정 교수의 모습은 많은 의료인들에게 신선한 영감을 주었다.

### 누가 나의 치즈를 옮겼을까? “변화에 두려워 말고 극복하라”

정 교수는 의사로서 항상 변화에 맞는 능동적인 사고와 행동을 강조한다. 마치 스폰서 존슨의 소설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가 주는 교훈과 일맥상통하다. 미국 유학 시절 느꼈던 가장 중요한 점은 ‘누구도 나에게 떠먹여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었다. 변화 속에서 막연한 기대가 아닌, 두려워 말고 능동적으로 극복해 나가며 자신의 것을 쟁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자신이 노력하지 않으면 누구도 이유 없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변화를 두려움으로 여기지 말고 새로운 기회로 여기고 능동적으로 변화를 극복하고 스스로 성장해야 합니다.” 정 교수의 이런 철학은 한결같이 의사로서의 생활에 묻어난다. 그래서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연구는 정 교수의 동기부여이자 활력이다. 이런 철학은 정 교수를 이미 브릭스 선정 ‘한국을 빛낸 사람’에 이름을 올리게 한 원동력이었다.

“내시경 시술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전문가가 되는 것, 더 많은 연구와 논문을 통해 학문에 기여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제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석학이 되는 것, 그것은 남의 평가가 아니라 제 스스로도 인정할 수 있는 의사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 교수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연구하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더 깊이 있고, 더 큰 것을 탐구할 수 있는 의학자가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라며 미소 지었다.



### 좋은 사람들, 웃음 꽃 피는 병원

정 교수가 바쁜 일과에도 시간을 쪼개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것은 병원과 사람들이라도 말한다. 천안이라는 아름다운 도시, 그 속의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하며 오직 진료와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기 때문이라 말한다.

“그 어느 병원보다 웃음이 넘쳐나는 병원이라 자신합니다. 자신이 이익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주며 함께 소통하는 우리 병원은 제가 진료하고 연구하는 큰 힘이 됩니다. 더 큰 병원, 더 좋은 시설의 메이저 병원에서는 느낄 수 없는 따스함이 있는 병원입니다.” 정 교수는 “천안병원에서만 느낄 수 있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경험하기 힘든 푸근함이 있다”고 전했다. 바쁘고 힘들지만, 함께 돕고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것은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또 다른 에너지를 준다고 말한다. “세계가 인정하는 소화기내과 의사가 되고자 목표로 삼은 나이가 50세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50이 넘었네요.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네요. 그래서 다시 55세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때는 저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훌륭한 의사이길 바랍니다. 목표를 위해 변함없이 노력할 것이고 천안병원은 저에게 큰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가장 훌륭한 의사는 어떤 의사냐?’는 질문에, 정 교수는 “내가 잘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잘하는 의사”라며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다 채워진다면 그때는 저 스스로를 인정할 수 있을 것 같다”라며 웃었다. ■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소화기내과는 최신 장비와 수준 높은 의료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고난도 치료 내시경 시술에서도 풍부한 경험과 성공적인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의 다양한 의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우리 병원 소화기내과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어 매우 뜻깊었습니다.



## 가족 같은 ‘믿음’과 ‘신뢰’로 하나가 되다

외래관 준공과 신생아실 리모델링으로 만족도 ↑  
 …최신 진단 및 수술 장비도 갖춰



예전과 달리 출산율 급감과 인구절벽 현상으로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는 분야가 산부인과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생명의 탄생과 출산을 책임지고 있다는 점에서 산부인과의 중요성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의 산부인과는 3명의 최고 전문의가 끈끈한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마치 자신의 가족을 돌보듯 산모와 태아, 여성 환자의 건강을 지키고 있다.

글. 전진용 사진. 이병희

순천향대 구미병원 산부인과는 개원 이후 46년 동안 8만 건이 넘는 분만을 해왔다. 구미지역 내 30~40대에게 출생병원을 물으면 절반 이상이 순천향대 구미병원이라고 답할 정도로 예전에는 분만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처럼 많은 분만이 이루어진 만큼 풍부한 경험과 실력은 이미 검증받은 상태다. 현재는 출산율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지만, 향후 출산 장려 정부 정책 등을 통해 더 활발한 분만과 출산을 기대해 볼 만하다.

현재 구미병원 산부인과는 한효상 교수(산부인과 진료과장), 전동수 교수, 홍정아 교수 세명의 전문의가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 특히 한효상 교수는 20년 이상 구미지역 산모들의 분만을 책임져 온 산증인 중 한 명이다. 한효상 교수를 중심으로 전동수 교수와 홍정아 교수의 케미는 그 어느과 보다 가족 같은 분위기를 만들며 병원 내에서도 부러움을 사고 있다.

특히 전동수 교수와 홍정아 교수는 사제 간의 인연으로 시작해 결혼에 골인한 부부 사이다. 전동수 교수와 홍정아 교수는 결혼 후 자신들의 자녀분만을 직접 한효상 교수에게 맡길 정도로 큰 신뢰감으로 함께 산부인과를 이끌고 있다. 이런 모습에 많은 구미병원 교직원들 역시 신뢰와 믿음으로 구미병원 산부인과에서 직접 분만을 경험하고 있다.

### 쾌적한 시설과 최신 진단 및 수술 장비 갖춰

구미병원 산부인과는 지역 내 최고 수준의 시설과 첨단 장비를 갖추고 있다. 지난해 9월 외래관 준공과 함께 새

외래 진료실로 이전해 많은 시설을 보완한 상태다. 이전보다 쾌적하고 깔끔한 환경에서 환자들을 맞이하고 있으며 이에 환자들의 만족도도 더욱 높아진 상태다. 신생아실 역시 리모델링을 마쳐 한층 새로워진 모습으로 산모와 신생아들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시설 외에도 최신 진단 및 수술 장비를 갖춰 보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순천향대 구미병원 산부인과는 분만 뿐 아니라 자궁근종, 자궁선근증, 난소낭종 등 다양한 부인과 질환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지역 내 폭넓은 환자들이 구미병원 산부인과를 찾아오고 있다.

한효상 산부인과 과장은 “비록 출산 인구가 줄어 분만은 많이 줄어든 상황이지만 부인과와 산과 모든 분야에서 다양한 연령층의 환자분들에게 높은 만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구미병원 산부인과는 자궁질탈출증, 부인과 내시경 수술, 외음부 성형, 폐경 이후 여성의 호르몬 및 비호르몬 치료, 만성골반통 진료 등 다양한 전문 진료를 시행하고 있다.

### 분만 줄었지만 고도의 부인과 질환 치료는 활발히 진행

현재는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분만은 예전에 비해 많이 감소한 상황이지만 부인과 질환 치료는 여전히 활발히 진행 중이다.

순천향대 구미병원은 2차 병원이지만 고도의 부인과 질환이나 비뇨부인과 질환, 유전질환 등 개인병원에서 접근

하기 어려운 치료를 보다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복잡한 수술이나 정밀한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풍부한 경험과 최신 설비를 통해 안정적인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3차 병원에서 주로 시행하는 수준의 고난도 진료도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어 환자들에게 큰 신뢰를 얻고 있다.

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를 세심하게 살피며, 수술 이후에도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지역 환자들

은 서울이나 경기권 등 굳이 멀리까지 가지 않고도 수준 높은 치료를 보장 받고 있다. 이런 이유로 지역 내 가장 사랑받는 산부인과로 굳건한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 병원 내에서 부러움 사는 가족 같은 분위기

구미병원 산부인과는 수많은 과중에서도 가장 가족 같은 분위기로 병원 내에서도 부러움을 사고 있다. 마치 가족의 일원처럼 서로를 격려하며 환자들의 진료와 치료에만

전념토록 힘을 불어 넣어 주고 있다. 진료는 산과와 부인과로 나뉘어 있지만 환자의 상황에 따라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교수에게 서로를 추천하고 또 이를 지원하고 있다.

가족 같은 신뢰감과 믿음을 기반으로 항상 철저하고 신중한 진료를 위해 함께 힘을 모으고 있다. 환자를 대할 때는 항상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며, 이를 통해 최선의 치료와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상황에 따라 함께 수술에 참여해 도움을 주는 등 최고의 팀워크는 구미병원 산부인과의 최고 경쟁력이자 장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홍정아 교수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산모와 환자들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라며 “같은 여성이자, 분만을 경험한 어머니로서 여러 환자들에게 보다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도록 모두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 MINI INTERVIEW

### “행복하게 일할 수 있게 신뢰해 준 팀원들에게 감사”

\_ 한효상 교수(산부인과 진료과장)



한효상 교수는 지난 2003년부터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산부인과에 몸담고 있다. 전공의 시절부터 지역 내 산모들의 출산을 도왔으며, 송고한 생명을 탄생시키는 일에 도움을 준다는 점에 매력을 느껴 지금까지 산부인과 전문의로 구미병원을 굳건히 지켜오고 있다. “지금은 산부인과가 많이 축소됐죠. 제 선배들은 한 달에 600명 이상의 분만을 도왔었고, 저도 처음에는 한 달에 300건의 분만을 진행했거든요. 지금은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주로 산과를 책임지고 있는 한 교수는 저출산 상황이 안타깝지만 조금씩 희망은 보인다고 전했다.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 등 조금씩 출산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통계를 접하게 됩니다. 현재는 자연분만까지 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지만 향후 제왕절개와 더불어 자연분만까지 도울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간으로 따져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적은 건수의 분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산과 이외에도 부인과 질병 등 다양한 여성 환자들에게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다. “산부인과 의사로서 20년 넘게 분만을 해 오면서 보람되거나 또는 안타까웠던 여러 경험들이 있습니다. 제가 받은 아이가 이제는 다시 성장해 산모로 병원을 찾아오기도 합니다. 밤을 새며 분만을 진행해 산모를 살리고 생명을 탄생시킨 경험은 저에게는 잊히지 않는 소중한 경험이지요.” 과거 구미는 울산, 포항과 함께 전국 10위 안에 드는 높은 출산율을 기록한 곳이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상황이다. “많은 변화로 인해 산부인과의 상황이 예전 같지는 않지만 모든 동료들과 팀원들이 함께 신뢰를 쌓으며 최고의 산부인과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첫 번째로 전하고 싶은 것은 ‘행복하게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말입니다.” 한 교수는 “신뢰와 믿음으로 자신에게 분만을 맡긴 동료 의사와 교직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낀다”며 “첨단 설비와 기술을 바탕으로 지역 내 여성 환자와 산모들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고의 전문의, 최고의 의료진, 최고의 팀워크로 구미병원 산부인과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신뢰할 수 있는 의료진,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

\_ 전동수&홍정아 교수

전동수 교수와 홍정아 교수는 순천향대 부천병원에서 교수와 전공의, 사제의 인연으로 처음 만남을 가졌다. 병원 내에서 사제 간의 인연을 이어가며 결국 결혼에 골인했고 이제는 부부 의사로 구미병원 산부인과를 함께 이끌고 있다.

“이런 저런 상황을 겪다 함께 구미병원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산부인과 규모가 크진 않지만 누구보다 신뢰할 수 있는 교수님과 의료진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행복한 일입니다.” 전 교수와 홍 교수는 자신들의 사랑의 결실인 아이의 분만을 한효상 교수에게 기꺼이 맡겼다.

홍 교수는 “여러 학회활동 등을 통해 저명한 산부인과 전문의들을 많이 알고 있었지만, 그 어떤 의사보다도 더 신뢰할 수 있는 이는 한효상 교수였다”며 “한 교수의 오랜 경험과 환자를 진심으로 대하는 모습은 지역 내 많은 이들에게 신뢰를 주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이유로 구미병원 내 많은 교직원들 역시 한 교수에게 직접 자신의 분만을 믿고 맡기고 있다.

“저희 세 명의 의사와 의료진들은 항상 기본 마음으로 산모와 아이, 부인과 질환 여성 환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 특성상 남성인 전 교수를 보며 다소 부담스러워 하던 여성 환자들도 전 교수와 홍 교수가 부부라는 말을 듣고는 한결 마음을 편히 갖는다. 부부가 함께 산부인과에서 산모와 환자를 진료한다는 점은 환자에게는 더 큰 신뢰를 주는 것이다.

구미병원에 오기 전, 부천병원 산부인과에서 로봇 시술을 직접 시행하며 전문성을 쌓아 로봇시술에 일가견이 있는 전 교수는 “향후 구미병원도 로봇 시술 등 첨단 설비 도입과 시술로 더 많은 여성 환자와 산모들이 신뢰할 수 있는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웃었다.

# “기업의 성공, 사회와 나누는 것은 당연한 일”



## 자기계발과 신념으로 최고 기업 일귀...서울병원에 5억원 기부 약속

한 경영인의 집무실은 새벽 5시면 불이 켜진다. 경기 광주 곤지암에 위치한 남영물류산업의 회장실이다. 개포동 자택에서 곤지암까지 매일 거르지 않고 새벽 5시에 출근을 마친다. 경영일선에서 한발 물러난 상태지만 항상 그 자리를 지킨다. 이것이 이 경영인이 30년 넘게 살아온 모습의 단면이다.

글. 전진용 사진. 최종엽

남후식 남영물류산업 회장의 이야기다. 남영물류산업은 물류 보관 설비 분야의 손꼽히는 기업으로 10대 대기업과 거래하는 건실한 중견기업이다. 본인 명의의 특허 6개를 탄생시키고 30년 넘게 술선수범하며 기업을 키워왔다. 이제는 매출 1000억원을 코앞에 두고 있다. 이런 남 회장은 지금의 성공보다 과거의 어려웠던 시절을 더 소중히 생각한다. 그동안 그를 지탱하고 그의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됐던 시절이기 때문이다. “최고의 기술자가 되고자 서울로 상경해 직장을 다닐 때는 빵 하나로 한 끼를 때우기 일쑤였습니다. 기술자로서 반드시 최고가 되어 이런 서러움을 잊고자 마음먹었습니다.” 중동 건설현장에서도 일하고 귀국 후에는 1989년 남영물류산업의 모태인 남영공사를 만들어 인테리어와 행거 사업을 시작해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왔다. “100년 이상 지속 가능한 기업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과 기술에 대한 끊임없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거든요. 지금까지 이를 지켜온 것이 성장의 동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성공은 나 혼자서 이룬 것이 아니다. 이런 남 회장의 우직한 경영철학은 남영물류산업을 100년, 200년을 바라보는 우량 중견기업으로 성장시켰다. 이제는 경영 대부분은 일선에서 물러났다.

“그동안 많이 노력해 왔습니다. 제가 쌓아온 경영철학 안에서 젊고 유능한 경영진들이 우리 기업을 잘 성장시키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경영에서 한 발짝 물러나 주변을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남 회장은 자신의 성공이 자신의 능력 때문만은 아니라고 항상 생각한다. “저는 좋은 직원들과 이 사회가 있었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힘들었던 젊은 시절을 떠올리며 직원과 또 주변의 이웃들까지 도움을 주는 것이 성공한 기업인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으로 기업이 성장함과 함께 그동안 꾸준한 사회 환원과 기부를 일상화해 왔다. 고향인 경북 영덕군의 향우회장을 맡으며 지역사회에 학생 장학금, 다양한 발전기금을 기부했다. 또한, 라이온스클럽 활동을 통해 여러 경로를 통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기부활동을 해왔다.

“기업인은 성공을 이루게 한 사회에 대한 환원을 통해 또 다른 발전을 지원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기업의 새로운 성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SCH  
ISS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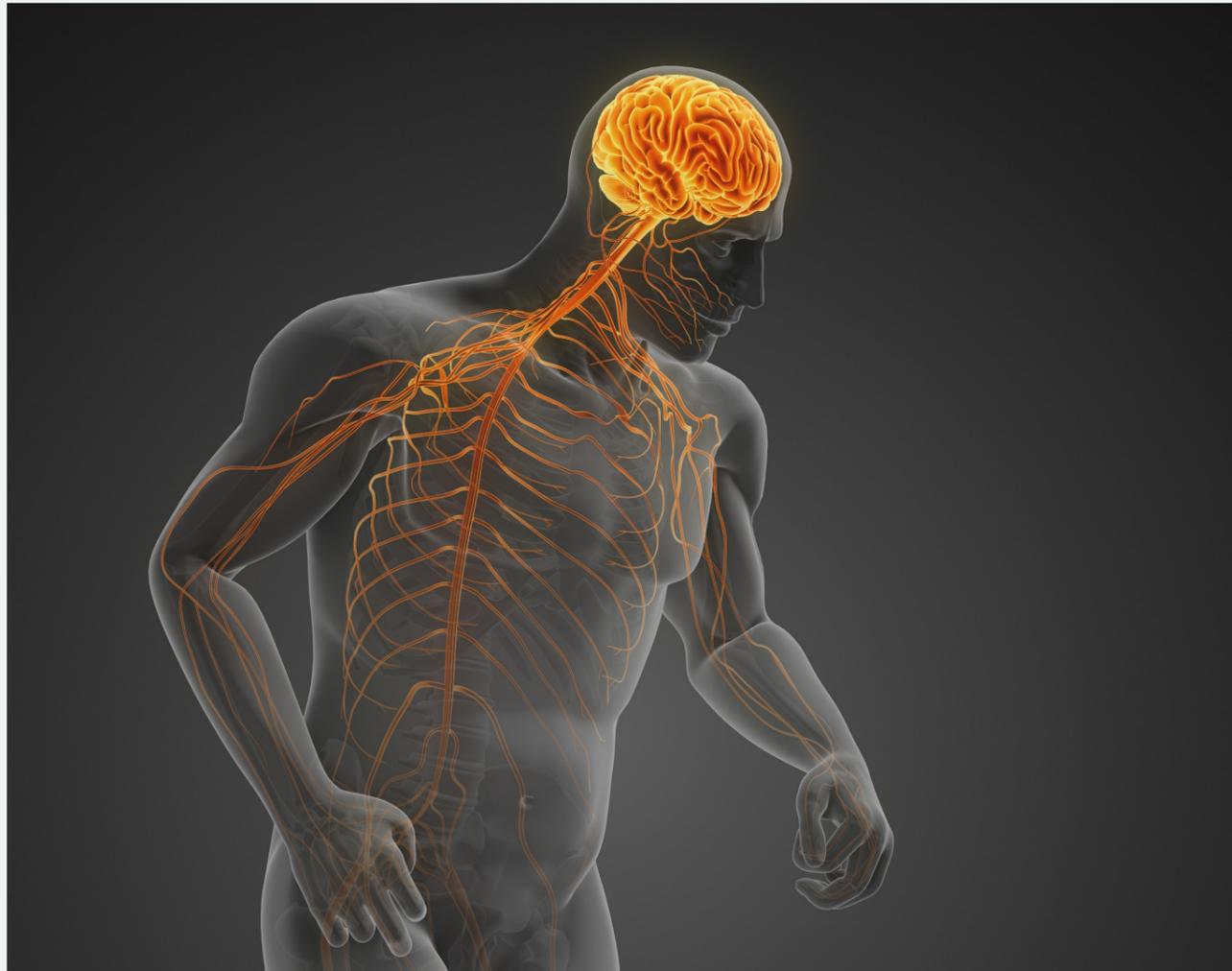
서울병원  


# 자율신경 기능 장애, 파킨슨병 초기 인지 저하 예측에 도움

권겸일·주병익 순천향대 교수팀 연구 논문 발표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권겸일(좌), 주병익(우) 신경과 연구팀



파킨슨병 초기 환자의 자율신경 기능장애가 인지 기능 저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다양한 자율신경 기능장애 중 위장관 기능장애가 파킨슨병 초기 환자의 인지 기능 저하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확인됐다. 파킨슨병은 운동 기능장애뿐만 아니라 인지 기능 저하, 수면 장애, 자율신경계 이상 등 다양한 비운동성 증상을 동반하는 복합적인 질환이다.

### 파킨슨병 초기, 자율신경 기능장애가 기억력·집중력 저하와 직접 연결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신경과 연구팀(제1저자 : 주병익, 교신저자 : 권겸일)은 지난 5월 국제 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에 발표한 ‘신규 파킨슨병 환자의 인지 기능 장애와 자율 신경 기능 장애 간의 연관성 (Association between cognitive and autonomic dysfunctions in patients with de novo Parkinson's disease)’ 논문이 이 같은 내용 담았다. 권겸일·주병익 교수팀은 순천향대 서울병원 파킨슨병 등록부에 등록된 신규 파킨슨병 환자 82명의 임상 기록을 분석했다. 연구팀은 정도 인지 장애가 있는 환자 21명과 없는 환자를 61명으로 나누고, 자율신경계 기능 평가 척도(SCOPA-AUT)를 사용하여 다양한 자율신경 기능 장애 점수를 비교했다. 연구 결과 인지 장애가 있는 파킨슨병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 자율신경 기능장애 점수가 5배 이상, 위장관 관련 장애가 4배 이상 많이 발생했다. 이는 위장관 기능장애를 포함한 전반적인 자율신경계 이상이 파킨슨병 초기 인지 기능 저하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자율신경 기능이 나빠수록 기억력과 집중력도 나빠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신경 기능장애 점수가 높을수록 기억력 검사 점수가 낮게 나타났고 집중·판단력도 떨어졌다. 다시 말해 자율신경 기능장애는 몸의 불편함을 넘어 두뇌 기억 기능 저하와도 직접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권겸일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신생 파킨슨병에서 자율신경 기능장애와 인지 기능 저하 사이의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자율신경 기능장애를 확인하는 것이 파킨슨병 초기 환자의 인지 저하 진단을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주병익 교수는 “이번 연구는 비교적 적은 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수행된 후향적 연구로서 일반화에는 주의가 필요하지만, 파킨슨병 초기 환자를 대상으로 자율신경계 기능 평가 척도를 활용해 다양한 자율신경 기능을 평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SCH

SCH  
ISSUE

부천병원

## 순천향대 부천병원 '하지 재건 클리닉', 환자 맞춤형 고난도 재건 치료 본격화

올해 3월 하지 재건 전문 교수 영입 및 전담팀 구성  
외상·난치성 만성 창상·당뇨발 등 하지 질환 전문 진료 시스템 구축

SCH  
ISSUE

부천병원

## 신장암 2기도 전절제 아닌 '부분절제술'로 치료한다

이상욱 교수, 로봇 신장 부분절제술로 7cm 종양만 제거 성공  
환자 회복 빠르고 만족도 높아... 수술 후 삶의 질 크게 향상



환자를 중심으로 하지 질환 전문 진료 시스템을 구축해 환자 치료의 체계성을 강화했다. 하지 재건은 피부·근육·뼈 등 광범위한 조직 결손을 재건하는 분야로, 외상·화상·암·혈관 질환·당뇨병성 족부 질환(당뇨발) 등이 주요 원인이다. 최근에는 림프부종 수술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하지 재건 클리닉 개설 이후 5개월 만에 수술 건수는 기존 대비 50% 이상 증가했으며, 수술 성공률은 95%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 세계적 수준 미세수술 역량 확보... 국제학회 논문·미세수술 교본 집필

순천향대 부천병원 성형외과 의료진은 유리피판술을 비롯한 미세수술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술기를 보유하고 있다. 유리피판술은 혈액순환이 유지된 상태의 조직을 이식하는 고난도 수술이다. 직경 1mm 안팎의 혈관을 현미경으로 정밀 접합해야 하며, 특히 하지 재건 분야에서 핵심적이다.

의료진은 다수의 국제학회 논문을 발표했으며, 2024년에는 국제 미세수술 교본 『Imaging for Reconstructive Microsurgery』(Springer)를 집필·발간하는 등 연구 역량도 입증했다. 정형화 교수는 “전담팀의 탄탄한 팀워크와 내과, 혈관외과, 정형외과 등과의 긴밀한 협진이 단기간 성과의 원동력이 됐다”며 “앞으로도 세계적 수준의 미세수술 및 연구 역량을 기반으로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하지 재건 치료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SCH

순천향대 부천병원이 하지 재건 분야 전문 치료를 위해 ‘하지 재건 클리닉’을 신설하고 단기간 내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다. 전공의 공백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난도 미세수술을 중심으로 환자 맞춤형 재건 치료를 강화한 것이 주요했다는 분석이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성형외과는 그동안 차한규 교수가 연간 100건 이상의 하지 재건, 림프부종, 유방 재건 수술을 시행하며 경험을 축적해 왔다. 여기에 올해 3월 하지 재건 전문 정형화 교수가 합류해 전담팀을 구성, 본격적인 하지 재건 클리닉 운영에 나섰다. 클리닉은 외상, 난치성 만성 창상, 당뇨발



분절제술을 선택했다”며 “신장을 최대한 보존하면 만성신부전 위험을 낮추고, 장기적으로 투석 가능성도 줄이는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고난도 로봇수술 명의 이상욱 교수, 맞춤형 치료 지속해 나갈 것**  
신장 부분절제술은 고난도 수술로 꼽힌다. 수술 중 출혈을 줄이기 위해 일시적으로 신장 동맥을 결찰하는 데, 이 시간이 30분을 넘기면 나머지 신장 기능이 급격히 저하될 수 있어 고도의 수술 집중도가 요구된다. 이상욱 교수는 과거에도 두 개의 종양을 20분 내 절제해 화제가 된 바 있는 고난도 로봇수술 명의다.

이번 수술 성공에는 이 교수의 풍부한 고난도 수술 경험과 로봇 수술기의 정밀성이 큰 역할을 했다. 3D 영상으로 최대 15배 확대가 가능하고 사람 손처럼 움직이는 로봇팔 덕분에 절제 정확도는 높고, 신경 손상 및 합병증 가능성은 최소화했다. 특히 로봇수술은 0.8cm의 작은 절개만으로도 수술이 가능해 출혈량과 흉터, 통증이 적다. 덕분에 수술 후 환자는 빠르게 회복했고, 수술 결과에 크게 만족했다.

이상욱 교수는 “수술의 목표는 단순한 종양 제거를 넘어, 환자가 수술 후에도 신장 기능을 유지하며 일상생활로 빠르게 복귀하도록 돕는 데 있다”며 “앞으로도 고난도 로봇수술을 통해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료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SCH

순천향대 부천병원 비뇨의학과 이상욱 교수가 신장암 2기 환자에게 고난도 로봇 신장 부분절제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해 주목받고 있다.

환자 김○○ 씨(61세, 남)는 7.2cm 크기의 신세포암(RCC) 진단을 받고, 지난 7월 22일 이상욱 교수의 집도로 다빈치 Xi 로봇수술을 이용한 신장 부분절제술을 받았다. 신장암 2기는 종양이 7cm 이상이지만 신장에 국한된 상태를 말하며, 이 경우 신장 전체를 절제하는 수술이 표준 치료로 적용된다. 그러나 이상욱 교수는 “신장 기능을 최대한 보존하고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7cm가 넘는 종양임에도 신장 부

SCH  
ISSUE

천안병원



## 중환자실 1인 병상 전환 '의료계 혁신 선도'

'한 명의 중환자에게 하나의 병실 제공,  
집중케어 가능한 새로운 표준'



중환자실을 1인 병상으로 탈바꿈한 천안병원이 최근 대한중환자의학회를 비롯한 전국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5월 7일 새병원 개원과 동시에 신축 건물에서 운영에 들어간 천안병원 중환자실(ICU)은 국내 의료기관에서는 보기 드문 1인실의 환자 독립 치료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료 현장에서는 중환자 치료에 효율성을 높이며, 획기적인 변화가 시작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병상마다 음양압 설비와 공조시스템을 갖춘 천안병원 중환자실은 환자들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고, 공기 전파감염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등 감염예방에 효과적이다. 특히 일부 소아 중환자실은 보호자 동반이 가능해 소아 환자에게 심리적 안정을 주는 가족 중심의 치료환경을 제공한다.

이 밖에도 중환자 치료를 위한 초음파, 기관삽관, 중심정맥관 삽입, 체외 순환기 적용 등의 복합 기술을 방해 없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시행하는 장점을 갖췄다.

간호사 1명이 2개의 병상을 담당하도록 구역화한 부분도 특징이다. 병상 사이마다 별도의 간호사 업무공간을 마련함으로써 환자들의 집중케어가 가능하고, 수준 높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진영 중환자실장(호흡기내과)은 “실제 1인 중환자실 전환 이후 환자들의 감염률 감소, 의료진 집중도 향상, 환자 및 보호자 만족도 상승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문수 병원장은 “독립된 구조의 1인 중환자실은 환자 안전과 치료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역점을 둔 혁신적인 변화”라며, “대한민국 의료를 선도하는 새로운 표준이 되어 중환자들의 생존율을 높이고, 최상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CH

SCH  
ISSUE



# 순천향대 · 순천향대 구미병원 · 구미전자정보기술원, AI의료융합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3자 업무협약 체결



협약식 관계자 단체사진

구미병원은 7월 31일(목),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서 순천향대 학교, 구미전자정보기술원과 함께 'AI 의료융합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민경대 병원장, 순천향대학교 송병국 총장, 전창완 연구산학부총장,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의 문추연 원장, 이주경 디지털헬스케어센터장 등 각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 AI 의료융합 협력 강화...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핵심 역할

이번 협약은 ▲AI기반 의료 융합 연구 협력 ▲공동 연구개발 및 연구체제 확립 ▲신규 사업 공동 기획 및 참여 등에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되었으며, 글로벌대학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AI의료기기 및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의 협력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디지털헬스케어, AI·실감 미디어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 역량을 보유한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AI 의료융합 생태계 구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다. 협약식 이후에는 기술원 투어가 이어졌으며, 디지털헬스케어연구센터 소속 연구원들이 직접 주요 연구 과제와 보유 기술을 소개하며 연구 역량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바탕으로 각 기관은 향후 협력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 순천향대 구미병원, AI 의료기기 협력으로 지역 의료서비스 혁신 나선다

협약을 계기로 지역 내 AI 의료기기 산업의 인재 양성과 연구 지원 체계가 강화되는 한편, 정기회의와 간담회 등 실질적 교류를 통해 기관 간 협력도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민경대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AI 의료기기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의료융합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S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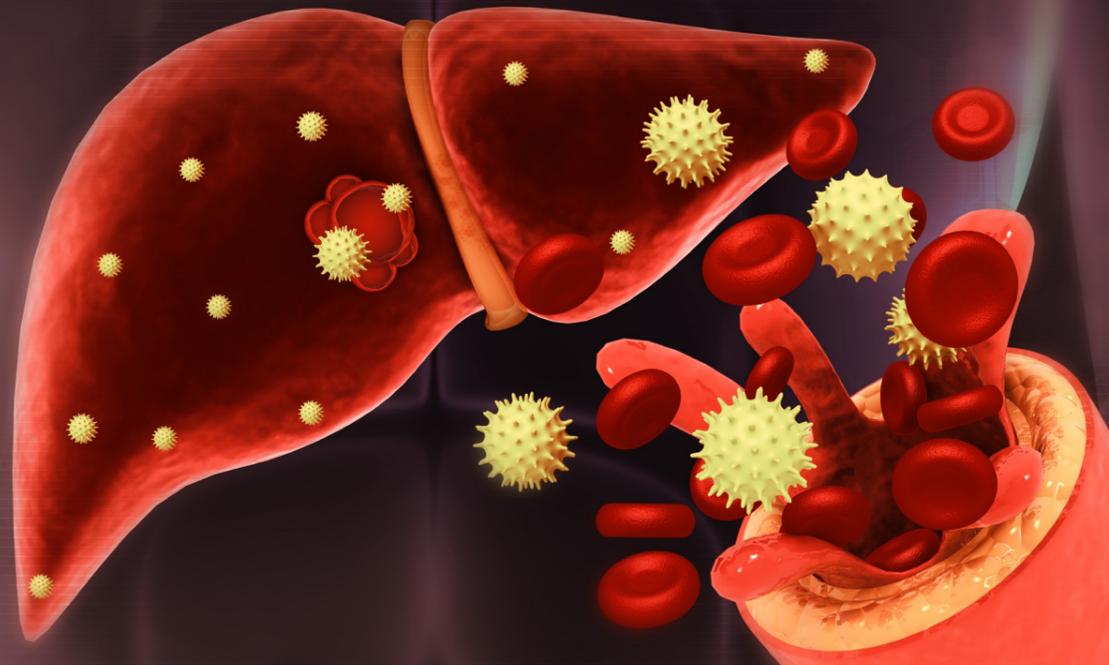
순천향대 구미병원 민경대 병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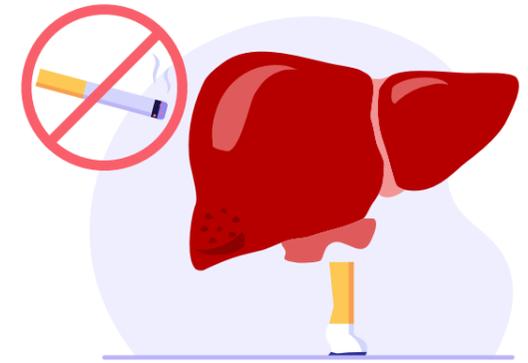
# 흡연, 비알코올성 지방간 발생 위험 높인다

금연 기간 10년 이상 시에는 위험 감소

흡연량이 증가할수록 비알코올성 지방간 발생 위험이 더욱 높아지는 결과



흡연이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의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가 나왔다. 또한, 금연 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에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발생 위험이 감소한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조현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연구팀은 국제 학술지 'PLoS One'에 지난 6월 9일 발표한 '흡연 상태와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의 연관성(Association between smoking status and 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논문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조현 교수팀은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건강검진센터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건강검진을 받은 성인 남성 12,241명의 대조군을 비교했다. 분석 결과, 과거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비알코올성 지방간 발생 위험이 1.19배 높았으며 흡연자의 경우 흡연량이 증가할수록 비알코올성 지방간 발생 위험이 더욱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하루에 담배 한갑을 10년~20년 동안 피운 사람은 비흡연자에 비해 비알코올성 지방간 발생 위험이 1.28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금연 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알코올성 지방간 발생 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이상 금연한 사람은 10년 미만 금연한 사람보다 비알코올성 지방간 위험이 1.33배 감소했다.

조현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흡연이 간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금연이 비알코올성 지방간 발생 위험을 낮추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많은 흡연자들이 금연을 결심하는 데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간은 크게 알코올성 지방간과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구분되며,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간염, 간부전, 간암으로까지 악화될 수 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간염이나 과도한 음주 없이 지방이 축적되는 상태를 말하며, 최근 비만과 관련된 문제로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SCJ](#)



조현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 부천병원 심장내과 문인기 교수팀, AI 기반 심장비대 원인 감별 기술 개발

AI 헬스케어 기업 '온택트헬스'와 함께 인공지능을 활용한 심장 초음파 분석 기술을 개발



인공지능(AI)이 심장 초음파 영상만으로 심장비대의 원인을 감별하는 기술이 국내에서 개발됐다. 이 기술은 MRI나 조직검사 없이도 정확한 진단이 가능해, 환자 부담을 줄이고 진료 효율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장은 고혈압, 심근병증, 아미로이드증 등 다양한 질환으로 인해 비대해질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심장 초음파만으로는 이러한 질환들을 구분하기 어려워, MRI나 조직검사 등 추가 검사가 필요했다. 이에 순천향대 부천병원 심장내과 문인기 교수 연구팀은 AI 헬스케어 기업 '온택트헬스'와 함께 인공지능을 활용한 심장 초음파 분석 기술을 개발했다. 연구팀은 국내 다기관에서 수집한 867명의 심장 초음파 영상을 AI에 학습시키고, 독립된 검증용 환자 619명을 대상으로 AI 성능을 평가했다.

### 초음파 영상 분석 기반 AI, 심장질환 진단 정확도 혁신... MRI·조직검사 없이 조기 판별 가능

이 기술은 초음파 영상에서 자동으로 심장을 분할하고, 심장벽의 두께, 모양, 조직의 질감 등 약 2만 개에 달하는 영상 특징을 추출해 진단에 활용한다. 그 결과, 개발된 AI 모델은 심장비대 여부를 매우 높은 정확도로 판단했으며, 원인 질환별로도 ▲비후성 심근병증 96%, ▲아미로이드증 89%, ▲고혈압성 심장질환 86%의 높은 진단 정확도를 보였다. 특히 고혈압성 심장질환은 기존 초음파 기반 진단의 정확도와 일관성이 33%에 불과했으나, AI 모델에서는 75%로 크게 향상됐다.

또한, AI 모델은 진단의 근거가 된 영상 정보를 시각화해 의료진에게 설명함으로써, 실제 임상에서 신뢰도 높은 진단 보조 도구로 활용이 가능하다. 병원마다 초음파 장비나 영상 품질이 달라도 안정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 장비 간 호환성 면에서도 강점이 있다.

문인기 교수는 "AI가 심장의 미세한 질감과 모양 차이를 정량화해 진단에 활용함으로써, 고가의 MRI나 침습적인 조직검사 없이도 조기 진단이 가능하다"며 "환자의 진료 편의와 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글로벌 다기관 연구를 통해 AI 모델을 고도화하면, 희귀 심장질환이나 운동선수의 병적 심장비대 감별에도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 성과는 미국심장학회(AHA)에서 발행하는 세계적 심혈관 영상 전문 학술지 'Circulation: Cardiovascular Imaging(IF 8.2)'에 게재됐다. 



문인기 순천향대 부천병원 심장내과 교수



위암은 오랫동안 한국인의 대표적인 암으로 꼽혀왔다. 다행히 조기 진단 기술과 수술법의 발달로 많은 환자들이 완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2기와 3기 위암 환자의 경우, 수술 후에 항암 치료를 추가로 받는 것이 표준 치료로 자리 잡은 지는 이미 10년이 넘는다. 이로 인해 재발률이 낮아지고 생존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여러 임상시험을 통해 입증된 바 있다. 하지만 환자 입장에서 항암치료는 결코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치료가 아니다. 위암 수술 후 지친 몸과 마음으로 다시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은 많은 환자에게 또 다른 큰 시련이다. 치료 도중 발생하는 구토, 설사, 손발 저림 같은 신체적인 고통은 물론, 직장을 쉬거나 병원에 자주 방문해야 하는 현실적인 부담도 크다. 항암제를 조절하고 투여하는 데 드는 사회적·경제적 비용 역시 결코 적지 않다. 그런데 과연 이런 치료를 모든 환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정답일까? 최근 들어 의료계는 '모두에게 같은 치료' 대신 '나에게 맞는 치료'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바로 '정밀 의학(Precision Medicine)'이라는 새로운 의료의 방향이 그것이다.

### 정밀 의학이란 무엇인가?

정밀 의학이란 환자의 유전 정보, 질병의 분자적 특성, 생활 습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누구에게 어떤 치료가 가장 효과적일지 미리 예측하고 치료하는 방법'이다. 과거처럼 동일한 병명이라고 같은 치료를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 개개인의 특성을 바탕으로 최적화된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최근 유전자 분석 기술과 의료 데이터 분석 역량이 크게 발전하면서, 이러한 정밀 의학이 실제 의료 현장에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제는 개별 환자의 유전적 특성을 기반으로 맞춤형 치료법을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 위암에도 '맞춤형 항암치료'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최근 발표된 연구들에 따르면, 일부 위암 환자들은 수술 후 항암 치료를 받아도 생존율 향상에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는 반면, 특정한 유전적 특성을 가진 환자들은 항암 치료에 매우 잘 반응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MSI-H (Microsatellite Instability-High) 위암이다. 이 유전자 유형을 가진 환자들은 면역 반응이 활발하고, 일반적인 항암제에는 반응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 제시되고 있다. 특히 일부 연구에서는 MSI-H 환자에게는 수술 후 항암치료가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결과도 보고되면서, 이러한 환자군을 선별하여 치료 강도를 조절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환자의 유전 정보나 종양의 분자적 특성을 분석해 항암치료의 필요성을 더 정밀하게 판단하려는 연구도 활발하다.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된 유전자 발현 기반 분석 기법(nProfiler®)은 종양 조직에서 발현되는 특정 유전자들의 패턴을 바탕으로, 위암 수술 후 항암치료가 실질적인 생존율 향상에 기여할 환자군을 선별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혈액 속에 떠다니는 미량의 종양 유전자를 분석하는 '순환 종양 DNA(circulating tumor DNA, ctDNA)' 검사도 주목받고 있다. 이 기술은 수술 후 몸에 암세포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민감하게 포착할 수 있어, 정말로 항암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선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직 임상 진료에서 널리 사용되지는 않지만, 향후 항암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 "불필요한 항암치료는 줄이고, 필요한 사람에게만"

물론 아직까지 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이 당장 진료 지침(guideline)에 반영될 정도로 충분한 근거를 갖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연구 성과들이 축적되고, 위암의 분자생물학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머지않아 위암 수술 후 보조항암치료도 '선별적'으로 시행되는 시대가 올 수 있다. 지금까지는 "2-3기 환자는 수술 후 보조항암치료가 필수"라는 기조가 우세했다면, 앞으로는 "누가 정말로 항암치료가 필요한지"를 먼저 판단한 뒤 치료를 결정하는 시대로 옮겨갈 것이다. 환자에게 꼭 필요한 치료만을 제공하고, 불필요한 고통과 비용은 줄이는 것이 정밀 의학의 궁극적인 목표다. 치료의 정답이 하나가 아닌 시대, 이제 위암 환자에게도 '나에게 맞는 치료'가 필요한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 ECR](#)



윤중혁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외과 교수



최근 수년간 국내외에서 성조숙증 환자의 유병률이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여아에서 더 두드러진다. 성조숙증은 빠른 골 성숙으로 인한 최종 성인 신장의 감소와 또래와 다른 신체 변화로 인해 심리·사회적 부적응을 초래할 수 있어 임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 성조숙증이란?

성조숙증(precocious puberty)은 여아에서 만 8세 이전, 남아에서 만 9세 이전에 2차 성징이 시작되는 것을 말한다. 여아의 경우 조기 유방 발달, 남아의 경우 고환 용적 증가(≥4 mL)를 기준으로 한다. 성조숙증의 원인은 여아의 경우, 대다수(80-90% 이상)가 기질적 원인 없이 발생하는 특발성 성조숙증이지만, 남아에서는 약 30-50%에서 뇌종양, 선천성 뇌기형, 내분비 질환 등 원인 질환이 발견된다. 최근에는 이러한 원인 외에도 환경적 요인, 특히 환경 내분비 교란 물질(endocrine-disrupting chemicals, EDCs)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 성조숙증과 관련된 환경 내분비 교란 물질

환경 내분비 교란 물질은 체내 호르몬의 합성, 분비, 운반, 수용체 결합 및 작용을 방해하거나 모방하는 외부 화학물질을 의미한다. 이들은 내분비계의 정상적인 신호 전달을 교란하여 성장, 발달, 생식 기능뿐 아니라 면역 및 대사 조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표적인 내분비 교란물질에는 다음과 같은 물질들이 있다. ▲비스페놀 A (BPA): 플라스틱, 캔 내부 코팅 ▲프탈레이트(Phthalates): 비닐 제품, 장난감, 화장품, 향수 ▲폴리염화비페닐(PCB), 다이옥신: 산업 부산물 ▲살충제(DDT 등) ▲폴리브롬화 난연제(PBDEs): 전자제품, 가구

#### 성조숙증은 어떻게 생길까?

성조숙증은 크게 중추성 성조숙증(central precocious puberty, CPP)과 말초성 성조숙증(peripheral precocious puberty, PPP)으로 구분된다. 중추성 성조숙증은 시상하부-뇌하수체-성선축(hypothalamic-pituitary-gonadal axis, HPG axis)의 조기 활성화로 인해 발생하며, 말초성 성조숙증은 성선 또는 부

신에서 성호르몬이 과다 분비되어 HPG 축과 무관하게 발현된다. 내분비 교란 물질은 다양한 기전을 통해 사춘기 발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일부 내분비교란물질은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작용하여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효과를 나타내거나, 안드로겐 수용체를 억제하여 남성호르몬 작용을 저해할 수 있다. 또한 아로마타제(aromatase) 활성 조절을 통해 에스트로겐 합성을 촉진하거나, GnRH 신경세포를 조기 활성화 시켜 HPG 축을 자극할 수 있다. 이외에도, 후성유전학적(epigenetic) 조절 역시 내분비 교란 물질의 작용 기전 중 하나로 보고되고 있다.

#### 예방 및 노출 최소화를 위한 생활습관

▲전자레인지에 플라스틱 용기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고 ▲뜨거운 음식은 유리 또는 스테인리스 용기에 보관하도록 권장하며 ▲가공식품, 통조림 섭취를 줄이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과일과 채소는 깨끗이 세척하여 섭취하도록 하며 ▲환경호르몬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화장품·로션 사용을 최소화하는 습관을 갖는 것을 권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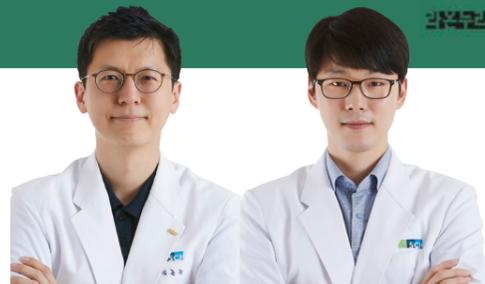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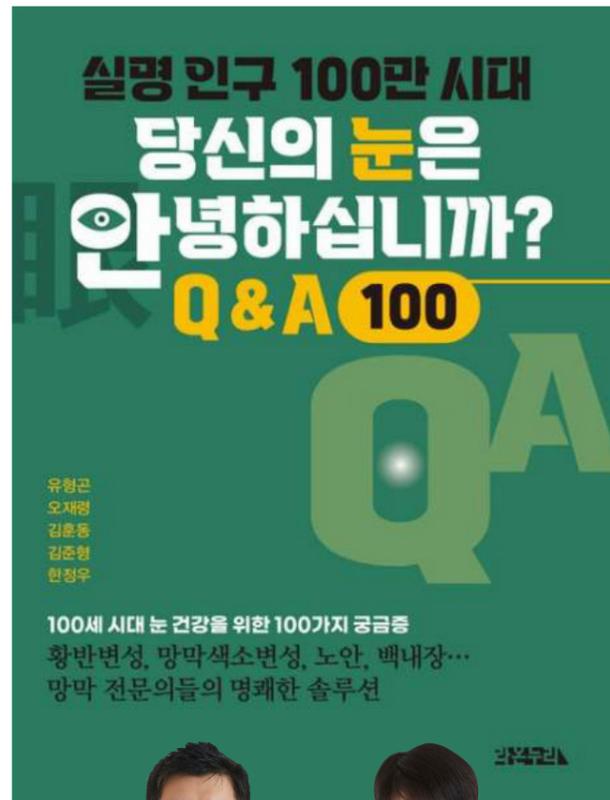
이러한 조치들은 단독으로 성조숙증을 예방할 방법은 아니지만, 불필요한 환경호르몬 노출을 줄이는 안전하고 합리적인 생활습관으로 권장될 수 있다. 성조숙증의 발생 원인에는 유전적·내분비학적 요인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도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으며, 그중 환경 내분비 교란 물질(EDCs)은 최근 가장 주목받는 인자 중 하나이다. 아직 대규모 장기 코호트 연구를 통해 명확한 인과관계가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역학적·실험적 연구 결과는 환경 내분비 교란 물질(EDCs)은 특히 여아의 소아청소년기 사춘기 발달 시점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성조숙증 환아를 평가하고 관리할 때, 환경 노출력을 고려하고, 환아 및 보호자에게 노출 최소화 방안을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scf



문은지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 실명 인구 100만 시대 『당신의 눈은 안녕하십니까?』

저자\_ 김훈동 한정우 유형곤 오재령 김준형



천안병원 안과 김훈동 교수

부천병원 안과 한정우 교수

## “100세 시대 눈 건강을 위한 100가지 궁금증” 실명 위기 속 현대인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책



세계보건기구(WHO)의 보고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최소 22억 명이 시각 장애를 겪고 있으며, 이 중 약 4천만 명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의 심각한 시력 손상을 가진 ‘시각장애인’으로 분류된다. 눈 관련 질환은 대개 노화와 관련이 깊은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인 우리나라에서는 실명 위험 인구가 80~100만 명을 넘어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증도 이상의 실명 인구가 100만 명이라는 사실은 단순한 통계 수치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단지 시력을 잃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통로와 자율성, 사회적 관계마저 제한되는 깊은 상실을 의미하기에 정보화 시대를 사는 모든 이들의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책은 진료실과 수술실에서 환자들을 마주해온 망막 전문의들이 관련 환자 눈 건강을 염려하는 모든 이들의 100가지 궁금증에 알기 쉽게 답변한 책이다. 



## 세계를 흔드는 K-팝 애니메이션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가 전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작품 공개 9주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 글로벌 영화 차트 최상위권을 지키며, 단순한 흥행을 넘어 한류 문화 확산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적 정체성과 글로벌 대중성을 동시에 입증한 이 콘텐츠는 K-팝, 나아가 K-컬처의 진화 방향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는 평가를 받는다.

글\_ 백승주 이미지\_ 넷플릭스 제공

### K-팝 정체성으로 무장한 글로벌 콘텐츠

'케데헌'은 걸그룹 헛트릭스가 음악과 무대를 통해 악령을 물리치는 독특한 설정을 담았다. 작품은 단순한 애니메이션을 넘어 하나의 뮤직비디오처럼 구성돼 강렬한 시각적·음악적 몰입감을 선사한다. OST '골든'을 비롯해 다수의 곡은 한국 작곡가와 가수가 참여해 완성도를 끌어올렸다. 특히, K-팝 특유의 화려한 무대 연출과 서사의 융합은 기존 애니메이션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차별화 요소다.

'한국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작품이지만 K-팝의 영혼을 가장 잘 담아낸 사례'라는 해외 평가단의 평가처럼, 국적을 넘어 '장르로서의 K-팝'이 전 세계에 통용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 글로벌 문화와 산업계의 반응

케데헌의 인기는 곧바로 수치로 나타났다. 작품 공개 이후 전 세계 검색 플랫폼에서 'Korea' 관련 키워드 검색량이 두 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특히 'K-푸드' 검색량이 75% 급증했다. 김밥, 라면, 순대 등 애니메이션 속 음식 장면이 글로벌 소비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한 덕분이다.

산업계의 움직임도 발 빠르다. 농심은 '귀신 신(神)' 글씨를 새긴 신라면·새우깡 패키지를 출시했고, 삼성전자는 케데헌 테마의 갤럭시 스마트폰 배경화면을 무료 배포하며 흥행 열기를 마케팅으로 연결했다. 화장품 업계에서도 케데헌 캐릭터와 연계한 협업 상품을 기획하는 등 파생 효과가 이어지고 있다.



관광 산업도 활기를 띠고 있다. 작품 속에 등장한 북촌 한옥마을, 남산타워, 대중목욕탕 같은 공간은 해외 시청자들에게 한국적 매력을 전달하며 관광 수요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국립중앙박물관의 외국인 방문객 수는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했다. 굿즈 열풍도 거세다. 까치와 호랑이를 형상화한 배지가 품질 사태를 겪는 등 '문화 소비'가 산업으로 연결되는 선순환이 나타나고 있다.

#### 한류의 새 이정표

케데헌의 흥행은 단순히 애니메이션 한 편의 성공으로 볼 수 없다. K-팝과 한국적 상징을 바탕으로 글로벌 대중문화를 재해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신드롬을 계기로 엔터테인먼트, 식품, 관광, 화장품 업종이 동시에 주목받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한국 콘텐츠 산업의 가치 재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궁극적으로 케데헌은 한류가 '한국에서 만든 콘텐츠'라는 한계를 넘어 '세계가 공유하는 문화 장르'로 확장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이정표로 기록될 전망이다.



기자의 시선

## 케데헌이 보여준 문화 파급력의 진화

케데헌 현상을 보며 떠오른 첫 번째 사례는 2012년 사이의 '강남스타일'이다. 당시 싸이의 유튜브 조회 수 10억 돌파는 한국 대중문화가 글로벌 시장에서 주류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입증했다. 그러나 그 인기 음악 한 곡의 바람처럼 지나갔다면, 케데헌은 산업적·문화적 파급 효과가 동시에 발생하며 구조적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또 다른 사례는 BTS다. BTS는 한국 가수가 '빌보드 핫100' 정상에 오를 수 있음을 보여주며 한류의 외연을 확장했다. 하지만 BTS 역시 음악을 중심으로 한 활동에 국한했다면, 케데헌은 음악, 애니메이션, 패션, 관광, 음식까지 아우르는 '멀티 콘텐츠 생태계'를 열었다는 점에서 더욱 넓은 스펙트럼을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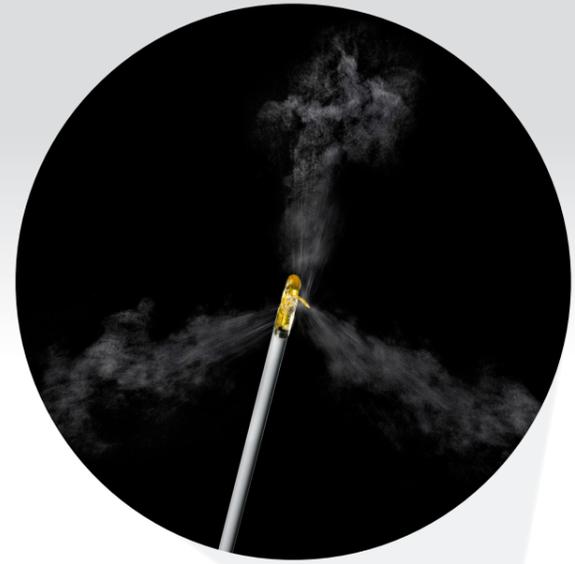
케데헌의 성공은 또한 글로벌 소비자들의 '문화 소비 방식'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드러낸다. 단순히 음악이나 영상을 즐기는 차원을 넘어, 작품 속 음식을 찾아 먹고, 장소를 방문하며, 굿즈를 수집하는 등 경험적 소비가 문화 산업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류가 더 이상 '팬덤 문화'에 머물지 않고, 생활 속에서 즐기는 일상적 경험으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한다.

물론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 케데헌이 한국이 아닌 미국 제작사에서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점에서 '한류의 소유권' 문제, 즉 한국이 아닌 외부 자본이 K-팝을 활용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한류가 그만큼 매력적이고 경쟁력 있는 문화 자산을 증명하는 사례로도 해석할 수 있다. '재팬 애니메이션'이 꼭 일본에서만 제작되지 않아도 그 장르적 정체성을 유지하듯, K-팝 역시 국적을 초월한 글로벌 장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문화적 IP(지적재산권) 관리'다. 한국 기업과 창작자들이 K-팝과 K-컬처의 핵심 자산을 보호하고, 글로벌 협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케데헌이 보여준 세계적 파급력은 한국에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 과제를 동시에 던지고 있다.

결국 케데헌 신드롬은 한류가 단순히 콘텐츠의 성공을 넘어, 세계 문화 생태계 속에서 독자적 장르로 자리 잡아가는 과정을 증명한 사건이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바람의 시작이었다면, BTS가 불씨를 키운 주인공이었다. 그리고 이제 케데헌은 그 불씨를 산업과 생활 전반으로 확장시키며, 한류의 진화가 어디까지 가능할지에 대한 기대를 현실로 바꿔놓고 있다. 

# 보스톤사이언티픽 리줌 시스템 (Rezūm System)



## 효능·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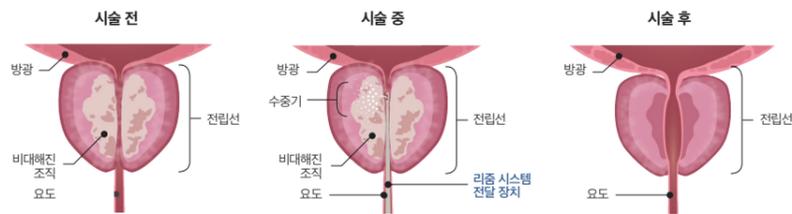
- 수증기로 비대해진 전립선 조직을 줄여 배뇨 곤란, 빈뇨, 야간뇨 등 증상 개선
- 시술 2주 내 호전, 5년 이상 효과 지속, 재치료율 4.4%

## 특장점

- 절개·이물 삽입 없는 최소침습 치료
- 성기능 보존 가능성 높음, 부작용 적음
- 짧은 회복 기간, 빠른 일상 복귀

## 적용 대상

- 전립선 부피 30~80㎖
- IPSS 13점 이상
- 최대 요속 15ml/초 이하
- 50세 이상 남성



### 항설 서석조 박사 기념사업회, 학생 20명에 장학증서 수여 24년째 순천향 '인간사랑, 생명존중' 정신 계승

재단법인 항설 서석조 박사 기념사업회(이사장 서교일)는 9월 4일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이현옥홀에서 2025년도 2학기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순천향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이유허 학생을 비롯해 20명에게 총 9,810만원 상당의 장학금과 함께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서교일 이사장과 서유성 상임이사, 송병국 순천향대학교 총장, 이정재 이사, 박현서 이사, 이민혁 이사 등이 참석해 장학생들을 직접 축하하고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장학증서를 받게 된 김승현 학생은 "장학금을 받게 되어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 학업에 매진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제가 받은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교일 이사장은 "이번에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성장하여 항설 서석조 박사의 인술과 인본주의 정신을 널리 펼쳐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재단법인 항설 서석조 박사 기념사업회는 순천향의 설립자인 항설 서석조 박사의 인술과 이념을 계승하기 위해 지난 2001년 설립해 매년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있다. 이번 장학증서 수여까지 887명의 학생들에게 총 22억여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 암세포 안에서 치료약물 생산하는 '세포 내 약물공장' 구현 美 의약화학 권위자 Journal of Medicinal Chemistry 8월호 표지논문 선정

순천향대학교는 나노화학공학과 임정근 교수 연구팀이 암세포 안에서 치료 약물을 직접 생산해 암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세포 내 '약물공장' 시스템을 개발했다. 연구팀은 세포 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약물 전달체에 루테튬(Lu) 촉매를 결합해 새로운 분자를 설계하고, 이를 통해 미토콘드리아 내부로 선택적으로 전달되는 생물직교성 촉매 합성에 성공했다. 이 촉매는 세포 내로 유입된 후 미토콘드리아에 축적되어 비활성 약물전구체(prodrug)를 활성 약물로 전환하는 반응을 유도해, 세포 내에서 실시간으로 치료 약물이 생성되도록 했다. 이를 기반으로 한 실험에서는 암세포 내에서 약물이 직접 생산되어 미토콘드리아 손상과 세포 사멸이 유도됨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연구결과는 '구아니딘 기반 분자수송체를 이용한 미토콘드리아 내 치료약물의 생체직교성 in situ 생성(In situ bioorthogonal generation of therapeutics in mitochondria using a guanidine-rich molecular transporter)'이라는 제목으로, 의약화학 분야 세계적 권위자인 미국화학회(ACS) 발행 Journal of Medicinal Chemistry 8월호 표지논문으로 게재됐다.



### 순천향대, 학사326명 석사152명 박사37명 학위수여식 개최

순천향대학교가 8월 21일 '2025년 8월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학사 326명, 석사 152명, 박사 37명 등 총 515명이 졸업했다. 대학원 석·박사 학위수여식은 인간사랑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행사는 △학사보고 △총장 졸업식사 △학위증서 및 상장 수여 △교가 제창 순으로 진행됐으며, 김기덕 교학부총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가 참석해 졸업생들의 앞날을 축복했다. 대학은 졸업생 편의를 위해 교내 곳곳에 축하 현수막과 포토부스를 설치하고 학위 가운 대여, 학위증 우편 발송 서비스를 제공했다. 송병국 총장은 김 부총장이 대독한 졸업식사를 통해 "대학 생활과 연구에 헌신해 결실을 본 졸업생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를 전한다"며 "우리 대학의 건학이념인 인간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변화와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아 도전하라. 미래 혁신을 이끌어가는 긍정의 자세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 AI의료융합 전문 4개 기업과 바이오·헬스케어 협력 체계 구축 실시간 AI 기반 바이오빅데이터 분석부터 기술 상용화까지

순천향대(총장 송병국)는 7월 31일 자연과학대학 세미나실에서 실시간 AI 기반 바이오·헬스케어 혁신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실시간 AI 플랫폼 전문기업 밴티크(Vantiq)를 비롯해, 줄기세포 및 오가노이드 기반 신약 독성평가 플랫폼 기업 넥셀(NEXEL), 차세대 IT 솔루션 기업 에티버스(Etevers), AI 시스템 구축 전문기업 도연시스템즈(Doyeon Systems) 등 국내외 4개 기업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교육부가 지정한 AI융합 바이오의약품 후보물질 발굴 인재양성사업단(첨단분야 특성화대학), 생명자원 바이오빅데이터 분석·활용 연구지원센터(핵심연구지원센터), 이공계 대학중점연구소의 공동 참여로 추진됐다. 산학연 연구 인프라를 통합적으로 활용해 인재양성과 공동연구를 촉진하고, 실시간 의료빅데이터 분석과 첨단 헬스케어 솔루션 개발을 가속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협약을 통해 순천향대와 참여 기업들은 AI 기반의 바이오의약품 후보물질 발굴 및 최적화 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실시간 환자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한 첨단 헬스케어 솔루션 구현에 협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핵심 연구자원과 첨단 장비를 공동 활용하고, 산학연 공동연구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 유경중 前 세브란스병원 교수, 9월부터 순천향대서울병원서 진료 심장 부정지수술, 즐기세포 치료 등 난치성 심장질환 수술 권위자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이 심장 부정지 수술 등 난치성 심장질환 분야의 권위자인 유경중 전 세브란스병원 교수를 영입, 9월부터 진료와 수술을 시작했다. 유경중 교수는 심장 박동을 유지한 채 관상동맥 우회술을 시행하는 심장 부정지 수술을 1998년 캐나다 토론토 종합병원에서 연수한 후 국내에 도입했다. 이 수술로 지금까지 3,000명 이상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 수술 사망률도 0.7%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기록을 갖고 있다. 미국의 평균치 2~5%를 훨씬 하회하는 수준이다. 특히, 고령이나 신장기능이 저하된 환자, 만성 폐질환을 앓는 환자들에게 심폐기를 사용하지 않는 심장 부정지 수술을 적용해 수술 후 합병증을 현저히 낮추고, 회복 기간을 단축시키는 치료를 시행해왔다. 또한, 난치성 심장질환 수술과 즐기세포를 통한 심장질환 치료법 연구에도 매진해 국내외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고, 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하면서 얻은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박동하는 심장에서 수술하는 관상동맥 우회술' 교과서도 저술했다. 유경중 교수는 연세대의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 인하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로 30여년간 심장 수술 분야에 정진하며 심장 부정지 수술 분야를 선도해 왔다.



### 제이더플로어, 순천향대 서울병원에 치료비 1천만원 기부 유방암 환자 항암 치료비, 전신 피부농양 환자 치료비에 사용

온라인 에스테틱 브랜드 편집샵 제이더플로어(대표 정호정, 천재민)가 지난 23일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병원장 이정재)에 1천만원을 기부했다. 기부금은 차상위계층인 유방암 환자와 기초생활수급자인 전신 피부농양 환자의 치료비로 지원될 예정이다. 제이더플로어는 지난 2021년부터 순천향대 서울병원 내 취약의료계층인 여성가장, 청소년, 청년들의 의료비 지원을 위해 꾸준히 기부를 이어왔으며 지금까지 누적 기부액은 총 3,700만원이다. 정호정 제이더플로어 대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환자들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의료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재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은 "뜻깊은 나눔을 실천해주셔서 감사하며 기부해주신 후원금을 통해 저소득층 환자들이 건강한 삶을 되찾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이더플로어는 현재 70여개의 브랜드, 1200여개의 제품이 입점되어 있는 온라인 에스테틱 브랜드 편집샵으로 정호정, 천재민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 이재철교수, PASMIS 2025 정기학술대회 주관

이재철 순천향대서울병원 교수가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부산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 최소침습 척추수술 학회(Pacific and Asian Society of Minimally Invasive Spine Surgery, PASMIS)를 주관했다. 올해로 25회째를 맞은 아시아태평양 최소침습 척추수술학회(Pacific and Asian Society of Minimally Invasive Spine Surgery, PASMIS)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척추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최소침습 척추수술의 최신 지견과 임상경험,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권위 있는 국제 학회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 PASMIS 초대 학술대회를 시작으로 총 5회를 유치했다. 2020년에 이어 5년 만에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약 12개국의 척추외과 전문의와 연구자 등 500여 명이 참가했다.



### 동서패더럴모글(주) 병원발전기금 기부약정식

류시훈 (주)동서패더럴모글 회장과 류시혁 (주)진공업 회장이 8월 6일 이사장실에서 병원발전기금 기부약정식을 가졌다. 두 회장은 순천향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새 서울병원 마스터 플랜' 기부 캠페인에 앞장서고 있다.



### 환자 중심 약물알레르기 정보 공유체계 구축 사업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병원장 이정재)은 8월 20일 '2025년 환자 중심 약물알레르기 정보 공유체계 구축 사업'(발주기관 : 한국보건 의료정보원)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다. 컨소시엄은 기관별 전자무기록(EMR)과 약물이상반응(ADR) 시스템의 환경 차이를 고려하여 기관 간 약물이상반응 정보를 정의하고, 데이터 품질을 제고하여 표준 규격으로 환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표준 규격이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FHIR(Fast Healthcare Interoperability Resources) 방식으로, 병원 간 의료 데이터를 하나의 공용 언어로 바꿔주는 역할을 말한다. 한편, 순천향대 서울병원은 8월 11일 순천향대 부천·천안·구미병원, 강원대병원, 강동경희대병원 등 6개 의료기관과 함께 '2025년 환자 중심 약물알레르기 정보 공유체계 구축 사업'을 위한 컨소시엄 협약을 맺고 사업에 참여했다. 사업관리는 순천향대 중앙의료원 정보화사업단에서 총괄한다.

###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13년 연속 의료 지원

부천병원이 부천시 대표 문화축제인 '제29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BIFAN)'를 13년 연속 의료 지원했다. 부천병원은 영화제 폐막식 행사장에 의료진과 구급차를 파견해 응급 상황에 대비했다.

부천병원은 부천시 유일의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영화제는 물론 '복사골 건강한마당', '부천아트센터 공연' 등 다양한 지역 문화 행사에 의료 지원을 제공하며 시민의 안전과 건강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 김상균 소화기내과 교수, 제35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수상

김상균 교수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하는 '제35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과학기술우수논문상은 매년 각 학술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우수 논문 가운데, 학술지 영향력과 논문의 질, 창의성, 학문 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김 교수는 국제학술지 Clinical and Molecular Hepatology(2024년 Impact Factor: 16.9)에 발표한 논문 '면역관용기에 있는 만성 B형 간염 환자의 장기 예후와 조직학적 검사의 필요성'을 통해 수상자로 선정됐다.



### 1차 영상 검사 적정성 평가 1등급

부천병원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1차 영상 검사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2023년 7월부터 9월까지 전국 1,694개 의료기관에서 입원 및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CT, MRI, PET 검사를 분석해 진행됐다. 부천병원은 주요 평가 지표에서 만점을 기록했으며, 모니터링 지표에서도 상급종합병원 평균을 웃도는 성과를 보였다. 그 결과 종합 점수 99.8점으로 경기 서북부권 상급종합병원 중 가장 높은 점수로 1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1등급은 부천병원이 환자 안전과 적정 영상 검사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다.



### 신회준 응급의학과 교수 '대테러의학',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

신회준 교수의 저서 '대테러의학'이 '2025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됐다.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제도는 매년 각 학문 분야에서 학문적 기여도가 높은 도서를 선정해 시상하는 제도로, 연구자들의 집필 의욕과 학술 발전을 장려하고 있다. '대테러의학'은 폭발물, 화학·생물학·방사능 테러 등 다양한 재난 상황별 환자 분류와 응급 처치, 병원 단계 대응 전략을 포괄적으로 다루며, 응급의료·외상학·재난의학·군진의학 분야 의료진과 초동 대응요원, 정책 입안자, 연구자들에게 실질적 지침을 제공하는 전문서다.



### 시각장애인, 비장애인 보다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 높다

천안병원 안과 김승훈 교수팀이 시각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김 교수팀은 '시각장애인의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 전국 규모 코호트 연구(Cardio-Cerebrovascular Disease Risk in Individuals with Visual Impairment: A Nationwide Cohort Study)'를 주제로 한 논문을 미국 안과역학(Ophthalmic Epidemiology) 최신호에 게재했다. 지금까지 시각장애인의 심혈관 또는 뇌혈관질환 각각의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지만, 심뇌혈관질환 모두에서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승훈 교수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각각 10,199명씩 선별해 1:1 성향매칭을 통해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도를 추적·관찰했다. 연구결과 시각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25% 정도 높았다. 두 그룹을 14년간 추적·관찰한 결과에서 시각장애인의 심뇌혈관질환 발생이 1,889명으로 비장애인(1,581명) 보다 308명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각장애 진단 후 24개월 이내에 무려 791명이 심뇌혈관질환에 발생해 높은 위험도를 보였으며, 3급 이내에 해당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의 경우 위험도가 35%까지 증가한 것도 확인했다. 김승훈 교수는 "이번 연구는 나이, 성별, 소득 수준, 동반 상병 수 등의 성향을 세세하게 분류해 1:1 매칭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발생위험의 신뢰도를 높였다"면서, "시각장애인의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특별한 관리와 치료접근, 정책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 제14회 QI 아카데미 교육 실시

천안병원이 '제14회 QI 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했다. QI(Quality Improvement) 아카데미는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QI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교육과정이다.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실시한 교육은 인사말, 격려사, 연제발표, 토의, 수료증 전달식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각 부서에서 선발된 QI실무위원, 지표담당자 40여명이 참석했다. 교육내용은 ▲PPT 구성 및 프리젠테이션 스킬(Q파트장 김진화) ▲효율적인 지표관리 워크숍(Q팀 이유은) ▲QI는 무엇인가요?(Q부실장 유익동 교수) ▲QI기본교육(Q실장 안태성 교수) ▲환자안전과 사례(Q팀 문지현) 등이다.



### 이한유 교수, 엘살바도르 의료진에게 순천향의 선진 응급의술 전수

천안병원 이한유 교수(응급의학과)가 최근 엘살바도르 의료진에게 순천향의 뛰어난 응급의술을 전수했다. 이한유 교수는 엘살바도르 산살바도르 소재 국립여성병원(Hospital Nacional de la Mujer)에서 진행된 보건의료 역량강화 사업에 책임강사로 참여했다. 엘살바도르 보건소 및 국립병원 소속 의료진 약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한유 교수는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EMSS) 소개에 이어 ▲현장 응급분만 및 신생아 초기평가 ▲중환자 이송 시 수역 및 산소요법 ▲어려운 응급기도관리 등을 교육했다.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교육에서 이 교수는 응급상황 시나리오를 구성해 병원 전단계와 초기 응급실 단계에서 현지 의료진이 활용할 수 있는 술기들을 직접 선보이고, 교육생들로 하여금 실습에 참여시킴으로써 엘살바도르 의료진에게 높은 만족도와 호응을 받았다.



### 119구급대원 대상 심뇌혈관질환 교육 실시

천안병원이 충청남도 소속 119구급대원을 대상으로 심뇌혈관질환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119구급대원이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응급상황 발생 시 전문적인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열렸다.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실시한 교육은 국가 지정 충남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센터장 윤석만) 주관으로 이뤄졌다. 교육에는 119구급대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심뇌혈관질환 환자 초기 응급처치(응급의학과 이한유 교수) ▲심전도의 이해 및 기본 심전도 사례 분석(심장내과 박상호 교수) ▲뇌졸중의 진단 및 치료(신경외과 박중현 교수) 등을 다뤘다.



### 호국 보훈의 달 기념 보훈환자 선물 전달

구미병원은 지난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입원 중인 보훈환자들에게 감사 선물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보훈환자들의 송고한 회생과 헌신에 경의를 표하고, 그간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이동기 부원장을 비롯해 대구보훈청장과 관계자들도 함께 참여했으며, 직접 병동을 찾아 환자와 인사를 나누고 선물을 전달하며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전했다. 이 자리에서는 국가유공자들의 회생과 공헌을 다시금 기리고, 동시에 입원 중인 환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는 뜻깊은 시간도 마련됐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진행된 이번 행사는 국가유공자들의 송고한 정신을 되새기고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 한편, 구미병원은 2002년부터 국가보훈처의 보훈의료 위탁병원으로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보훈환자들이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보훈환자들에게 신뢰받는 병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 2025년 QI 중간발표회 개최

구미병원은 7월 23일(수), 향설대강당에서 2025년 QI 중간 발표회를 개최했다. QI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개선 활동을 의미하며, 구미병원은 매년 QI 중간 발표회와 경진대회를 열어 교직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부서별 의료 질 향상 활동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김우석 QI 실장(외과 교수) 등 주요 보직자와 교직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총 17개 팀이 참여해 열띤 경연을 펼쳤다. 발표 주제는 ▲수술 예방적 항생제 적정성 향상을 위한 활동(보형심사팀), ▲혈액투석환자의 고인산혈증 관리(인공신장실)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한 대처능력 향상 활동(6병동) 등이 있었으며 각 팀이 진행한 다양한 QI활동 사례가 공유됐다. 민경대 병원장은 "QI 활동은 단순한 업무 개선을 넘어 환자 안전과 만족도를 높이는 핵심적인 활동"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과 혁신을 통해 환자 중심의 의료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전 교직원들이 함께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 '폐렴 적정성 평가' 6회 연속 최우수 1등급 획득

구미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한 폐렴 6차 적정성 평가에서 '최우수 1등급'을 획득하며, 1차 평가부터 6회 연속 1등급을 달성했다. 이번 평가는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폐렴으로 입원한 만 18세 이상 환자를 진료한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폐렴 진단 및 치료의 질 향상을 위해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평가 항목으로는 ▲산소포화도검사 실시율 ▲중증도 판정도구 사용률 ▲객담배양검사 처방률 ▲첫 항생제 투여 전 혈액배양검사 실시율 ▲병원도착 8시간 이내 적합한 첫 항생제 투여율 등 총 5개 지표로 평가됐다. 평가 결과, 산소포화도검사 실시율, 중증도 판정도구 사용률, 첫 항생제 투여 전 혈액배양검사 실시율 등 주요 항목에서 100점 만점을 기록하며, 전체 의료기관 평균인 82.9점을 크게 웃도는 99점을 받아 1등급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민경대 병원장은 "첫 평가 이후로 6회 연속 1등급을 획득하며 지역 내 최우수 폐렴 치료기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라며 "앞으로도 환자들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 최고등급 1등급 획득

구미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한 '제 1차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평가는 2023년 7월부터 2023년 9월까지 CT, MRI, PET 장비를 보유한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영상 검사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환자안전 강화 및 영상검사 질 향상을 목적으로 처음 시행되었다. 평가 항목으로는 ▲조영제 사용 검사 전 환자평가 실시율 ▲MRI 검사 전 환자평가 실시율 ▲피복저감화 프로그램 사용 여부 ▲핵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PET 판독률 등 총 5개 평가지표와 9개 모니터링 지표로 구성됐다. 평가 결과, 구미병원은 조영제 사용 검사 전 환자평가 실시율, MRI 검사 전 환자평가 실시율 등 주요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종합점수 98.8점을 기록하였으며, 전체 평균 67.6점을 훨씬 상회하는 성적으로 1등급을 획득했다. 민경대 병원장은 "정확하고 안전한 영상검사는 진단과 치료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이라며 "이번 평가를 통해 우리 병원의 검사 체계와 의료진의 역량을 인정받아 기쁘다. 앞으로도 신뢰받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SCH NETWORK

순천향 인간사랑 50년,  
의료를 넘어 사람을 꽃피우다

**SCH 서울병원**  
www.schmc.ac.kr/  
02-709-9114

**SCH 부천병원**  
www.schmc.ac.kr/bucheon  
032-621-5114

**SCH 천안병원**  
www.schmc.ac.kr/cheonan  
041-570-2114

**SCH 구미병원**  
www.schmc.ac.kr/gumi  
054-468-9114

**순천향대학교**  
www.sch.ac.kr